

2025. 07. 20

# 장항의 집

## 제련소 체험 영상 기획안

홍길동 (주)



영상 제작 개요
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|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|
| 주제   | 1960년대 장항 제련소와 장항항 마을 간접 체험 콘텐츠 |       |          | 기획 의도 | 광물 제련 과정을 일반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고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, 산업 현장의 생생함과 지역의 정체성을 동시에 전달 |
| 연출매체 | 1ea 프로젝트                        | 연출 종류 | 3D 애니메이션 | 러닝 타임 | 5분 내외  |

영상 구성 요소




| 구성 | 길이  | 주제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01 | 60" | 활력 넘치는 60년대 장항항의 아침        |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. 광물을 실은 배들이 정박하고, 항구는 선원들과 노동자들로 활기를 띤다. 분주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, 활력 넘치는 장항항의 아침 풍경이 펼쳐진다. |
| 02 | 70" | 장항항을 거쳐 제련소로 이동하는 과정       | 광물은 소달구지에 실려 장항역으로 향한다. 장항역에 도착한 이들은 장항역에서 열차를 타고 장항 제련소로 이동한다. 장항역은 시민의 발이 되어준 중요한 교통 수단이었다.                       |
| 03 | 70" | 작업자들과 함께 땀 흘리는 생생한 제련소의 하루 | 작업자들은 제련소에서 광물을 부수고, 레일을 따라 운반하고,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금속과 불순물을 분리한다. 실제 현장을 체험하듯, 사람들의 노고가 생생하게 전달된다.                       |
| 04 | 60" | 미래로 나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장항의 모습    | 하루를 마친 작업자는 땀을 닦으며 제련소를 나온다. 그의 시선 앞에는 붉게 물든 노을과 마을을 내려다 보며 마무리 된다.   |







## 장항 제련소 체험 영상 기획안

| 대주제                        | 길이  | 씬   | 화면  | 내용  | 연출 포인트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활력 넘치는<br>60년대 장항<br>항의 아침 | 10" | #01 |    | 어스름한 새벽빛은 사라져가고, 하루를 시작하는 태양이 바다를 비추며 떠오른다.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" | #02 |    | 광물을 싣고 정박하는 배들로 활기찬 항구의 모습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항항의 활기참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" | #03 |   | 장항항에는 원양어선의 선원들과 광물을 나르는 노동자들로 북적이다. 언제나 바쁘지만, 사람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친다. | 밝은 미래를 소망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" | #04 |  | 외양선이 광물을 싣고 들어오면 장항제련소 작업자들은 소달구지에 광물을 옮겨 제련소로 향한다.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
## 장항 제련소 체험 영상 기획안

| 대주제                  | 길이  | 씬   | 화면  | 내용   | 연출 포인트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|
| 장항항을 거쳐 제련소로 이동하는 과정 | 10" | #05 |    | 장항항에서 출발한 작업자들은 광물을 소달구지에 싣고 평화로운 시골길을 지나 구장항역까지 이동한다.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15" | #06 |    | 장항역을 거쳐 장항제련소로 도착한 작업자들이 열심히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다.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15" | #07 |   | 카메라가 줌 아웃 되고, 작업자들 뒤로 바위에 서서 지저귀는 새들이 포커스된다.           | 자연과 공존하는 장항 제련소 |
|                      | 5"  | #08 |  | 이내 멀리 장항제련소로 날아가는 새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## 장항 제련소 체험 영상 기획안

| 대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길이  | 씬   | 화면  | 내용   | 연출 포인트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|--|--------|
| 작업자들과<br>함께 땀 흘리는<br>생생한 제련소의 하루 | 10" | #09 |    | 제련소 내부로 배경이 전환되고, 작업자들은 광물을 곡괭이로 잘게 부쇄 수레에 싣는다.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" | #10 |    | 공정 순서대로 설계된 레일을 따라 운반되는 광물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" | #11 |   | 용광로에 도착한 광물은 가마안에 넣고 금속과 불순물을 분리된다. 용광로 틀에 뜨거워 보이는 쇳물이 흐르고 있다.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" | #12 |  | 작업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굳히는 제련 과정을 거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## 장항 제련소 체험 영상 기획안

| 대주제                     | 길이  | 씬   | 화면  | 내용   | 연출 포인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미래로 나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장항의 모습 | 10" | #13 |    | 배경은 제련소 외부로 바뀌고, 작업자는 일을 마친 뒤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걸어온다. | 노동의 값진 경험, 가치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10" | #14 |    | 푸르른 나무들과 건물이 조화로운 풍경 뒤로 노을이 지고있다.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15" | #15 |   | 카메라는 바닷가를 향해 천천히 줌 아웃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항의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10" | #16 |  | 바닷가에 서있는 두루미들이 바다를 향해 날아가며 화면은 암전된다.                 | 자연과 공존하는 장항 제련소,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장항을 비유 |



감사합니다.

